

공동체 소식



‘설’ 합동위령미사

시작이시며 마침이신 주 하느님,
오늘 새해 첫날을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봉헌하오니
온갖 은총과 복을 가득히 베푸시어
저희가 조상들을 기억하며 화목과 친교를 이루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뜻을 따르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사순시기 안내

- 사순시기의 의미 : 재의 수요일부터 40일 동안 참회와 극기의 생활로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에 참여하여,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이루는 만남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 사순시기 전례와 기도 : 주일미사 중 ‘대영광송’을 바치지 않으며, ‘신앙의 신비어’는 ‘나’양식으로 바칩니다. 또한 자주 ‘십자가의 길’ 기도를 바칩니다.
- 공동 십자가의 길 기도 : 사순시기 동안 주일미사 40분 전에 시작합니다.

- 오늘 이 미사는 ‘설’ 합동위령미사로 봉헌합니다. (매일미사, 93쪽)
- 미사봉헌 신청: 전례부를 통하여 신청바랍니다.

재의 수요일 미사

- 미사: 2/14(수) 저녁 7:30
- 내용 : ‘재의 수요일’로부터 사순시기가 시작됩니다. 교회는 이날 ‘단식’과 ‘금욕’을 지킵니다.
- 전례봉사 :
독서 (전용진 라우렌시오, 탁지완 안토니오글라시)

본당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월정기회의

- 일시: 2/18(주일), 교중미사 후.

본당 부활 합동판공 고해성사

- 집전시간 : 3/16(금) 저녁시간
- 초청사제 : 오마하 오세완 바오로 신부님

캔사스대교구 “Archbishop’s Call to Share” 안내

- 내용 : 캔사스 대교구 교구장 주교님의 자선 나눔 모금에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 참여방법 : 교구홈페이지 메뉴
-RESPONDING(<https://www.calltoshare.org/>)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파 견
금 주 (2/11)	21	511	498	33
차 주 (2/18)	118	513	178	123

전례 봉사자 및 복사

	해설자	제1독서	시중 복사
		제2독서	향 복사
금 주 (2/11)	김대연 요셉	강영진 라파엘	김정원 안젤라
		한춘희 라파엘라	고평원프란치스코
차 주 (2/18)	박태주 로마노	홍순익 마르띠노	차민서 임마누엘
		최은미 아녜스	이원준 요한

애찬 봉사자

금 주	조경희, 박계숙, 박주연
차 주	김시연, 박정자, 한순례, 김경돌, 이경남

헌금 봉사자

금 주	김대연 요셉, 전용진 로렌스
차 주	이내익 베드로, 이우영 가브리엘

우리들의 정성

	영성체	헌금	교무금
2/4주일	45명	263 달러	1,350 달러
이우석, 김태선, 김정원, 박태주, 박동희, 전용진 (총 6 세대) 특별헌금 : 박태주(250달러)			

설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2코린 4,18-

2018년 2월 11일

+미사시간
주 일:11:00 AM
화요일: 7:30 PM
수요일: 7:30 PM
목요일:10:00 AM(교육관)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Korean Catholic Church in Kansas City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주임신부 홍진 베드로
M: 913.912.2574
hongjhin@daum.net

회장 이우석 프란치스코
M: 816.616.0033

재무 김병철 베네딕도
M: 913.710.0770

오늘의 전례



설날은 음력 정월 초하룻날로, 조상을 기억하며 차례를 지내고 웃어른께 세배를 드리며 덕담을 나누는 우리 민족의 큰 명절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 버리는 한 줄기 연기일 따름임을 잊지 말고, 주님의 성실한 종으로서 늘 깨어준비하고 있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명심하며 살아갑시다.

그림 묵상
‘충직한 종’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상상할 수 없는 갖가지 보물들을 떠올려 봅시다. 이 보물을 주님의 뜻에 따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활용한다면, 주님의 종인 우리는 행복합니다. 마침내 주인이 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날, 성실한 종은 주인과 함께 큰 즐거움을 영원히 누릴 것입니다. (그림 김옥순 수녀 | 성바오로딸수도회)

제 1 독서 :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6,22-27

<이스라엘 자손들 위로 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겠다.>

화답송 :



- ◎ 주 하느님의 어지심을 저희 위에 내리소서.
- 산들이 솟기 전에, 땅이며 누리가 생기기 전에, 영원에서 영원까지 당신은 하느님이시옵니다. 천 년도 당신 눈에는 지나간 어제 같고, 한 토막 밤과도 같사옵니다. ◎
- 당신이 그들을 쓸어 내시니, 그들은 아침에 든 선잠 같고, 사라져 가는 풀과 같사옵니다. 아침에 돋아나 푸르렀다가, 저녁에 시들어 말라 버리나이다. ◎
- 저희 날수를 헤아리도록 가르치소서. 저희 마음이 슬기를 얻으리이다. 돌아오소서, 주님, 언제까지 리이까? 당신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
- 아침에 당신 자애로 저희를 채워 주소서. 저희는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당신 하신 일을 당신 종들에게, 당신 영광을 그 자손들 위에 드러내소서. ◎

제 2 독서 :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4,13-15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복음환호송 :

- ◎ 알렐루야.
- 나날이 당신을 찬미하고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 ◎ 알렐루야.

복음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2,25-40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명의 말씀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루카 12,34)

수많은 정보를 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시대라고도 합니다. 웹 페이지를 검색하다 보면 흘러 넘치는 정보 속에서 간혹 눈길이 머무는 소식이 있습니다. 여행을 가면 좋을 곳에 대한 안내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 가지는 못하지만 언젠가는 갈 수 있으리라는 희망과 기대를 담아 기사를 정리해 보곤 합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든지 여행을 떠나려면 꼭 갖추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 시간, 경제력, 함께할 사람 등이 떠오릅니다.

이 중에서도 누구와 함께 가는지는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의미 있는 곳이라고 해도 같이 간 사람들 사이에 뜻이 맞지 않으면 여행의 흥과 일정이 전부 깨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물론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해 주시는 하느님의 허락이 가장 중요하겠지요. 단 며칠 또는 몇 주 동안의 여행도 그럴지만 인생 여행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삶의 선물을 누구와 함께 가꾸어 가고 또 어떻게 채우는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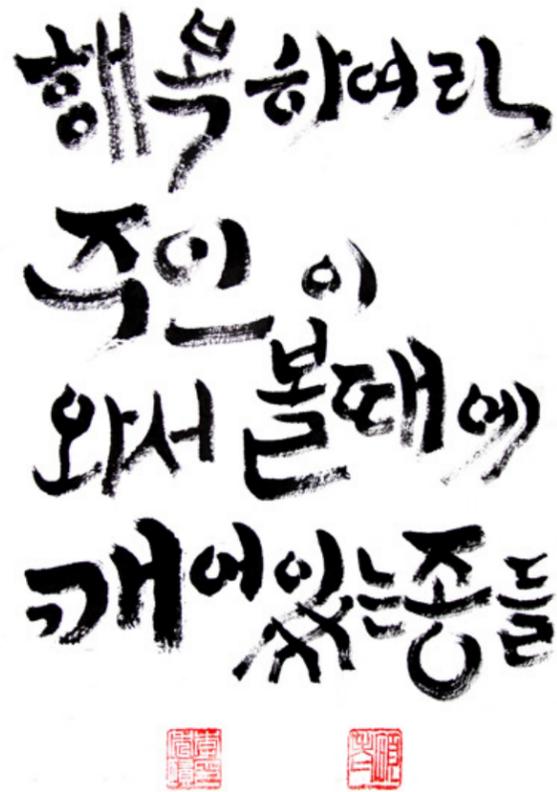
매우 드물고 귀하여 가치가 있는 물건을 보물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 여행에서 보물은 단순히 물건만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사건도 포함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인생 여행의 보물, 신앙 여정의 보물'은 사랑이신 하느님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는 모든 사람과 물건, 그리고 사건입니다.

오늘 독서 말씀에서는 하느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과 사건에 대해 알려 줍니다.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탈출의 “그 밤”(지혜 18,6)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주신 하느님을 기억하도록 일깨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보증이 보이지 않는 실체들의 확증”(히브 11,1)인 믿음에 대해 알려 줍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해방의 그 밤과 아브라함, 사라의 믿음의 행위는 하느님을 언제 어디서나 기억하고 기념하도록 일깨워 주는 신앙 여정의 보물입니다. 주님께서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루카 12,34)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머물러야 할지 분명히 드러냅니다. 누구와 더불어, 무엇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열정을 쏟아붓는지 살펴보면 자신의 보물이 누구인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보물은 하느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사람들입니다. “깨어 있는 중”(루카 12,37)은 약속에 성실하신 하느님을 찾고, 하늘 본향을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부터 참된 보물이 무엇인지 알고, 마음을 둘 줄 아는 슬기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습니다.

조성품 아우구스티노 신부 | 서울대교구 사목국장



서예가 이수현(베르나르도·67·성남대리구 도척본당) 作,

한국가톨릭역사

성앵베르(Imvert, 범세형)주교
2대 교구장, (프랑스) 1835년~1839년

초대 조선교구장이셨던 브뤼기에르 주교님의 장례를 치른 모방 신부의 편지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 본분은 그 명령과 허락을 은총의 도우심으로 따르는 데에 있습니다. 모든 이에게 버림을 받기 전에는 그리고 혼자서는 여행을 절대로 계속할 수 없게 되기 전에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은총의 도우심을 따라 조선 가까이 오셨던 초대 교구장님이 조선에 들어 오지 못하고 그 발걸음을 멈추게 되었을 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이미 자신의 임무를 이해하고 그 일을 대신해 추진해나갈 분을 미리 추천하였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조선 선교지가 프랑스 파리외방전교회 소속이 아니라면 어찌 제가 앵베르 신부 같은 선교사를 사천에서 빼낼 수 있겠습니까? 앵베르 신부는 모든 점에서 보기 드문 인물입니다. 저는 저희 선교지 중 어떤 곳에서도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에... 신부는 진짜 신부를 알아보고 선교사는 진짜 선교사를 알아본다는 것이지, 브뤼기에르 주교님은 자신 소임의 후임자로 앵베르 신부님을 추천하였고, 바로 이분이 후에 조선의 2대 교구장이 되셨음을 생각할 때 초대 교구장님의 발걸음은 멈춰진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가톨릭대사전을 통해 우리는 앵베르 주교님께서 어떻게 조선에 들어오셨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곧 중국 대륙을 횡단하여 1837년 12월 17일에 봉황성 변

문에 다다라 이튿날 조선 입국에 성공하였고, 13일 후에는 서울에 무사히 도착하였다. 이로써 그는 조선 땅을 처음 밟은 주교가 되었다.” 그러나 주교님은 이날부터 2년이 채 안되어 1839년 9월 21일 군문효수라는 극형으로 한강 새남터에서 목을 잘리어 순교하였습니다. 국경을 넘으면서 어서 빨리 조선말을 익혀서 고백성사를 베풀고 함께 미사를 집전할 생각에 가슴이 뛰셨을 앵베르 주교님의 마음이었지만, 배교자에 의해 자신의 거처가 알려지고 또 교우들의 안전이 걱정되어 스스로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한발 먼저 조선에 들어와 활동하던 모방 신부와 샤프탕 신부와 함께 어떻게든 조선교구가 제자리를 잡도록 온 힘을 다하신 2대 앵베르 교구장님을 기억합니다. 교우들의 안전을 위해 스스로 순교의 길을 걸었음을 기억합니다. 당신께서 우리와 함께했던 2년은 결코 짧지 않은, 200년 이상의 가치가 있는 시간임을 깨닫습니다.



- 1819년 12월 18일 서품.
- 1835년 5월 보좌 주교로 성서.
- 그 해 10월 교구장직을 승계.
- 1837년 12월에 입국한 최초의 서양인 주교로, 박해를 받는 신자들을 돌보다가 체포되어 1839년 9월 21일 새남터에서 순교.
- 1901년 11월 2일에 그 유해가 명동대성당 지하 묘지에 안치됨.
- 1925년 복자품에 오르고, 1984년 교황 요한 바오로2세에 의해 시성됨.

교리상식

사순시기가 왜 생겼을까요?

사순시기 40일은 예수님이 공생활을 시작하기 전 40일 동안 단식하며 기도하신 기간에서 유래합니다. 사순시기는, 재의 수요일부터 성목요일 주님만찬 미사 직전까지를 가리킵니다. 정확히 날짜로 세보면 43일과 44일 사이가 되지만, 대략 40일을 의미하는 사순이란 말로 표현합니다. 사순시기 동안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수난에 동참하기 위해 단식과 극기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40일은 하느님과 만나기 위해 준비하는 기간, 회개와 정화의 기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글: 『교회상식 속풀이』 | 바오로딸 발행